

2002년 보건의료부문의 중앙정부예산 현황 및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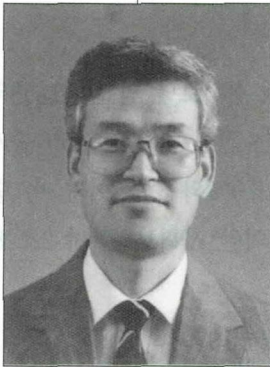
An Analysis of the Government Budget for the Health Sector 2002

1. 서론

200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보건의료부문의 예산을 살펴보기 전에 보건복지부 소관의 전반적인 예산에 관해서 먼저 검토해 보기로 한다.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되며, 금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157억원과 국립의료원 특별회계 660억원 등 특별회계 907억원 등을 합쳐 총 2064억 2천만원으로서 이는 전년 대비 0.1%가 감소한 것이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7조 7495억원과 농어촌 특별세관리 특별회계 979억원 등 특별회계 3145억원을 합쳐 총 8조 640억원으로서 이는 전년 대비 3.9% 증가한 것이다.



曹在國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장

표 1. 200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1예산 (A)	2002예산 (B)	증 감 (B-A)
세 입	합 계	206,716	206,420	△296(△0.1)
	일반회계	111,327	115,707	4,380(3.9)
	국립의료원특별회계	62,377	66,024	3,647(5.8)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19,859	10,460	△9,399(△47.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3,153	14,229	1,076(8.2)
세 출	합 계	7,758,037	8,063,948	305,911(3.9) ¹⁾
	일반회계	7,458,139	7,749,477	291,338(3.9)
	국립의료원특별회계	62,377	66,024	3,647(5.8)
	재정융자특별회계	81,500	53,700	△27,800(△34.1)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96,109	97,909	1,800(1.9)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19,859	10,460	△9,399(△47.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6,900	72,149	45,249(168.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3,153	14,229	1,076(8.2)	

주: 1) 2001년 본예산(추경전 6조 5726억원) 대비 2002년 전체예산 증가율은 22.7%임.

자료: 보건복지부, 「세입·세출 예산개요」, 2002. 1.

2002년도 분야별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를 먼저 살펴보면, 인건비 1253억원과 사업비 7조 6242억원 등 총 7조 7495억원으로서, 이는 전년 대비 3.9%가 증가한 것이며 전년 대비 인건비 및 사업비의 증가율은 각각 16.0%와 3.7%이다. 이 중 사업비는 보건의료분야 3589억원, 사회복지분야 4조 4365억원, 사회보험분야 2조 8288억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세출예산 중 특별회계는 농어촌특별세관리부문이 979억원으로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에너지 및 자원사업부문 721억원, 국립의료원부문 660억원, 재정융자부문 537억원, 책임운영기관부문 142억원, 그리고 국유재산관리부문이 105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액은 전년 대비 4.86%가 증가하였다.

표 2. 200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1예산 ¹⁾ (A)	2002예산 (B)	증 감 (B-A)
합 계	7,458,139	7,749,477	291,338(3.9) ²⁾
1. 인건비	108,013	125,265	17,252(16.0)
2. 사업비	7,350,126	7,624,212	274,086(3.7)
- 사회복지	4,124,329	4,436,549	312,220(7.6)
• 기초생활보장	3,269,589	3,403,369	133,780(4.1)
• 사회복지서비스	854,740	1,033,180	178,440(20.9)
- 보건의료	317,322	358,888	41,566(13.1)
• 보 건	174,859	187,520	12,661(7.2)
• 의정 및 한방	63,064	78,430	15,366(24.4)
• 보건산업진흥	73,608	87,343	13,735(18.7)
• 기관운영 등	5,791	5,595	△196(△3.4)
- 사회복지	2,908,475	2,828,775	△79,700(△2.7)
• 지역건강보험	2,636,309	2,574,723	△61,586(△2.3)
• 공·교건강보험	184,403	161,778	△22,625(△12.3)
• 국민연금	87,763	92,274	4,511(5.1)

주: 1) 2001년 예산은 추경예산기준(1조 1854억원 포함) 금액임.

2) 2001년 본예산(추경전 6조 2727억원) 대비 증가율은 23.5%임.

자료: 보건복지부, 「세입·세출 예산개요」, 2002. 1.

2. 보건의료부문 예산 현황

앞의 <표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 7조 7495억원 중에서 보건의료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3589억원으로서 4.63%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2001년도(추경예산 포함)의 4.25%보다 0.38% 포인트 증가한 것이고, 금액으로는 13.1%가 증가하여 사회복지부문(7.6% 증가)과 사회보험부문(2.7% 감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대폭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보건의료부문 예산을 세분하면 보건분야 1875억원, 의정 및 한방분야 784억원, 보건산업진흥분야 873억원, 기관운영 등이 56억원으로 구

200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출예산 중 보건의료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3589억원으로서 4.63%에 이르고 있으며, 사회복지부문과 사회보험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대폭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표 3. 200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출예산 중 특별회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1예산 (A)	2002예산 (B)	증 감 (B-A)
1. 국립의료원특별회계	62,377	66,024	3,647(5.8)
- 인 건 비	24,646	26,604	1,958(7.9)
- 사 업 비	37,731	39,420	1,689(4.5)
2. 재정융자특별회계	81,500	53,700	△27,800(△34.1)
- 저소득층 자립자금 융자	60,000	43,700	△16,300(△27.2)
- 장례식장·납골당 건립	6,500	-	△6,500(△100.0)
- 신약개발자금 융자	15,000	-	△15,000(△100.0)
- 중소병원 기능전환 지원	-	10,000	10,000(신 규)
3.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96,109	97,909	1,800(1.9)
-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25,189	27,202	2,013(8.0)
- 농어민연금 지원	70,920	70,707	△213(△0.3)
4.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19,859	10,460	△9,399(△47.3)
- 국립서울정신병원 이전	12,280	3,000	△9,280(△75.6)
- 국립보건원 이전	5,177	2,779	△2,398(△46.3)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전	2,402	713	△1,689(△70.3)
- 식품의약품안전청 이전	-	3,968	3,968(신 규)
5.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26,900	72,149	45,249(168.2)
6.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3,153	14,229	1,076(8.2)
- 인 건 비	7,088	7,942	854(12.0)
- 사 업 비	6,065	6,287	222(3.7)

자료: 보건복지부, 「세입·세출 예산개요」, 2002. 1.

성되어 있으며, 이 중 의정 및 한방분야가 전년 대비 24.4%, 보건산업진흥분야가 18.7% 증가하여 대폭 인상되었다. 한편 기관운영 등 분야의 예산은 전년 대비 3.4%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분류는 보건복지부에서 다년간 사용해 온 것으로서 넓은 의미로는 건강 보험도 보건의료부문에 포함될 수 있으며, 기타 다른 방법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편의상 보건복지부의 분류를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

이와 같은 분류 방식에 따라 과거 몇 년간 보건의료부문의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한편 일반적으로 보건의료 정책의 집행을 논의한다면 보건과 의정 및 한방분야가 될 것인 바 이 두 분야의 예산은 2000년도에 다소 감소했다가 그 이후 계속 증가해 오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부문이 보건복지 일반회계의 5%도 되지 못하는 실정에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증대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식품·약품의 경우 2001년부터는 의정 및 한방분야에 포함되었고 식품의약품안전본부와 지방청에 대한 예산도 청으로 승격함에 따라 1998년도 예산부터 제외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도
보건의료부문 예산은
보건복지 일반회계의
5%도 되지 못하는
실정에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증대될
필요가 있다.

3. 2002년도 보건의료부문의 주요 사업

1) 질병예방 및 국민건강증진

(1) 구강보건사업 강화

보건의료부문 중에서 구강보건사업의 예산이 전년 대비 315.7퍼센트

표 4. 연도별 보건복지부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및 보건의료부문 변화 추이

(단위: 백만원,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보건복지예산 ¹⁾		2,851,166	3,112,726	4,161,109	5,310,021	7,458,139	7,749,477
보 건 의 료	보건	91,312	96,754	121,224	118,724	174,859	187,520
	의정 및 한방	67,574	74,151	59,671	55,280	63,064	78,430
	식품·약품	3,662	4,132	1,711	3,557	-	-
	안전본부·지청	15,227	-	-	-	-	-
	보건산업진흥 ²⁾	41,050	43,699	41,556	54,412	73,608	87,343
	기관운영 등	8,262	8,246	7,727	4,115	5,791	5,595
소 계 ³⁾		227,087 (7.96)	226,982 (7.29)	231,889 (5.57)	236,088 (4.45)	317,322 (4.25)	358,888 (4.63)

주: 1) 지출예산 중 일반회계로서 추경예산 반영. 단 2002년 제외

2) 1999년도까지 보건의료기술로 표기

3) ()안의 숫자는 보건복지예산 중 비율 표시

자료: 보건복지부, 「세입·세출 예산개요」, 2002. 1.

(2001년도 16억원에서 2002년 67억원)가 증가하여 2002년도 주요한 사업으로 부상되고 있다. 이 중 신규사업으로서 초등학생들의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22억원을 책정하여 치아우식증이 많이 발생하는 연령층인 초등학생들의 어금니 교합면을 치과용 재료로 메워줌으로써 충치의 사전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생 270,000명(농어촌지역 199,000명과 도시지역 저소득층 71,000명)으로서 1인당 평균 4개의 어금니를 메워주는 것으로 가정할 때 1인당 16,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편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 10년간 사업으로서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68,000명에 대한 의치 및 보철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바(비희망자 30% 제외), 금년도 처음으로 4,760명에 대한 의치 및 보철사업에 29억원을 책정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되었다.

또한 64개 보건소 등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데 16억원을 책정하였다.

(2) 저소득층에 대한 조기 무료 암검진사업

전국민 의료보장제도와 의약분업실시로 국민건강보호의 기본 틀은 갖추었으나 사전 예방적인 보건증진시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이의 일환으로 2005년까지 5대암에 대한 암조기 발견을 위한 전국민 암검진 체계를 구축하되, 2002년에는 3대암(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에 대한 무료 암검진사업(본인부담비용 지원 78억원)을 확대하여 암검진을 희망하는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하위 20%)들은 누구나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암치료를 30%에서 45%로 높이고 국민건강수명의 연장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다.

(3) 고액부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만성신부전증 투석, 혈우병, 고셔병, 근육병, 베체트, 크론병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동 질환자의 가족 및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건강보험급여액의 본인부담액 및 비급여항목중 일부(식대, 지정진료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체 지원대상 인력은 7,516명으로서 기존의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에 신규로 베체트병과 크론병이 추가되었다.

(4) 저소득층 소아백혈병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13억원(신규)

소득수준에 비해 본인부담 의료비가 과도한 가정을 대상으로 백혈병, 소아암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과탄을 방지하고 암치료율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15세 이하 저소득 백혈병 소아암환자 500명에 대하여 본인부담의료비를 1인당 연간 500만원씩 지원해주는 신규 사업으로서 13억원이 책정되었다.

(5) 정신질환관리 강화

2001년도에 이어 2002년도에도 정신질환의 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배정하였는 바 금액으로는 전년 대비 8.0%가 증대되었다(2001년도 406억원에서 2002년도 439억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만성정신질환자를 요양·보호하고 있는 정신요양시설에 종사자 인건비, 시설관리비, 약품비 및 재활프로그램비 등 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요양·보호·재활 훈련 등 사회복지시설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86억원(55개소 16,047명을 대상으로 연간 1인당 1,678,000원)을 책정하였으며 이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것이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및 무연고자인 정신질환자를 요양·보호하는 정신요양시설중 노후된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을 위하여 43억원이 배정되었으며, 이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경상보조 형식으로 지원되는 것이다.

그리고 회복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생활훈련·작업훈련 등 각종 재활 훈련을 통해 지역사회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시설의 신축 등 기능보강을 위한 지원에 48억원을 배정하였다.

(6) 국립암센터 지원

암의 진단 및 치료법을 개발하여 암 치료율을 높이고 연구결과를 기

2002년에는
사전예방적인 보건증진시책의
 일환으로 암검진을 희망하는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20%)들은 누구나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초로 하여 생명공학산업과 의약산업 등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암센터에 금년에도 총 314억원이 배정되었는 바 이는 전년 대비 42.9% 감소한 금액으로서, 이는 시설이나 장비 등에 대한 투자가 연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으로서는 부속병원 운영(50억원)¹⁾, 암연구동 건립 및 암연구사업(164억원), 그리고 국가 암치료의 선진화를 위한 양성자치료센터 건립(100억원)²⁾ 등이다.

(7) 국립보건원 운영: 286 → 479억원(67.3% 증)

장기적으로 국립보건원의 기능을 확대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바,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 대비 67.3퍼센트가 증가하였다(2001년도 286억원에서 2002년도 479억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생물테러 예방·관리체계 구축(124억원), 생물테러 예방 치료제 확보(두창 백신 및 보툴리눔 중독증 치료제: 62억원), 조기진단 능력 배양을 위한 실험실 시설 및 장비 보강(47억원), 생물테러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체계 구축 등(15억원), 61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 406,000명에 대한 인플루엔자 접종 및 신생아 22,000명에 대한 B형 간염 예방접종사업(11억원), 국제행사 대비 에이즈 예방사업(10억원), 유전체 실용화 연구사업(35억원), 콜레라 등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국가방역체계 강화(33억원), 전염병 감시체계 시스템 강화(16억원), 실험실 진단능력 등 전염병 위기관리기반 강화(17억원) 등이다.

2) 보건의료산업진흥: 보건의료산업육성을 위한 연구사업 지원

21세기의 대표적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인 보건의료산업을 발전시켜 인간의 생명 및 건강과 관련된 의약품·의료기기·치료기술 등을 개발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정부에서는 계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1) 부속병원 운영비는 자체수입으로 조달되고 있으며, 2002년도 자체 예상수입은 580억원 정도임.
2) 총사업비는 480억원(양성자 가속기 설치 360억원, 건물신축 120억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2년에서 2004년까지임.

지금까지 G7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수행되고 있던 선도의료공학기술개발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이 분야의 지원예산도 종료되었다. 이 사업은 1995년부터 2002년까지 7년 동안 총 775억원이 지원되었고 2001년에는 100억원이 지원되었다.

한편 보건의료산업진흥분야 예산의 경우 총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18.7%가 증대되었으며, 연구개발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이는 점차 다양화하는 보건의료분야의 연구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초기반연구부터 제품화 연구과정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원분야는 의과학, 식품 및 영양, 화장품, 뇌의약학, 치의학, 정책연구 등이다.

둘째, 신약개발연구사업으로서 의약품 연구개발과정에서 신물질설계, 합성, 효능검색 등 개발후보물질을 선정하는 신물질 탐색기술과 전임상 및 임상시험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다.

셋째, 휴먼의료공학기술개발사업으로서 차세대 지능형 의지·보조기, 간호용로봇 등 휴먼복지융합기술, 신소재생체재료인공장기기술, 이동형 응급의료시스템 등 보건의료정보계측기기의 개발을 지원하며 금년도부터 2010년까지 9년 동안 2424억원이 지원되며, G7 프로젝트의 연구기반을 토대로 하여 첨단의료공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2002년도에는 140억원이 책정되었다.

넷째, 바이오 보건기술연구개발사업으로서 보건의료유전체·프로테오믹스 연구개발, 생명·노화연구개발, 고부가가치 첨단바이오보건소재개발, 바이오안전성 평가기술개발 등 4개 분야에서 생명과학기술을 이용한 질병의 예방·진단·치료기술의 개발을 위한 것이다. 역시 휴먼의료공학기술개발사업과 같이 금년부터 2010년까지 9년 동안 5840억원이 지원되며 2002년도에는 106억원이 지원되었다.

다섯째, 보건산업기술이전사업으로서 민간기관과 개인 등이 개발한 첨단 보건산업기술의 평가와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설립된 「한국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한 지원이며 2002년도에는 약 2억원이 배정되었다.

보건의료산업진흥분야 예산의 경우 총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18.7%가 증대되었으며, 연구개발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한 지원근거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뇌연구촉진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기술이전촉진법 등에 의한 것으로서 엄청난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것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3) 의정 및 한방

(1)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공중보건 의사, 보건진료원 제도운영 및 중·소도시보건소 기능보강 등 공공보건의료기반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에 대하여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어촌의료서비스기술지원단 운영 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사업지원, 공중보건 의사 직무교육 등 지원, WHO 지역보건의료체계연구개발 등으로 2002년도에 58억원이 책정되었다.

둘째,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질환의 악화 방지 및 치매노인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하여 치매요양병원의 신축과 증축, 장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2년도에 110억원이 책정되었다.

(2) 응급의료체계 구축

응급의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 및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비 지원, 응급의료미수급대불 등을 위한 응급의료기금 지원, 이동응급의료셋트 도입,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등의 지원으로 2002년도에 50억원이 배정되었다. 전년 대비 42.4%(2001년도 35억원)가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총액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3) 의료제도발전특위 등 운영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대통령 직속의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와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의 운영 경비로 2002년도에 7억원 정도가 책정되어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은 물론 단기적인 방안의 제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4) 한의학 연구

암, 중풍, 치매 등 주요 만성·난치성질환에 치료효과가 뛰어난 한방 치료기술과 한방 비방 등으로 통용되고 있는 우수처방법의 작용원리를 객관화하여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투자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한 연구비를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으며, 대상 질환은 암, 뇌 질환, 골관절 질환, 내분비 대사성 질환, 면역계 질환 등 5대 만성·난치성 분야이다. 2002년에 25억원이 책정되었고 기타 품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 등에 5억원이 배정되었다.

4. 결 론

지금까지 200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예산 중에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보건의료부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사업이 계속사업으로서 수행되고 있으나 새롭게 수행되는 과제들 중에는 노인의 치 보철사업, 저소득층 소아 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사업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사업들은 연차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 중에서 보건의료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낮은 상태로서 2002년도의 경우 4.63%에 불과하다. 물론 건강보험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나 절대적인 액수 자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여러 분야 중에서도 특히 공공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정부 예산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 중에서 보건의료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낮은 상태로서 2002년도의 경우 4.63%에 불과하며 여러 분야 중에서도 특히 공공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정부 예산이 확대되어야 한다.